

## DMZ 활용 산책로·도로 조성...관광 자원화

입력 2021-03-13 21:26:45 수정 2021-03-13 21:45:52

뉴스9(춘천)



[앵커]

비무장지대, DMZ 주변의 우수한 생태 환경을 활용해 산책로와 자전거길 등 다양한 길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관광지과 역사 현장을 아우르는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봄기운을 머금은 하천 옆 길을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습니다.

인제 인북천의 물소리 들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양구 대암산.

접경지역의 정취에 젖어듭니다.

자전거도 다닐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춘 이 길은 DMZ 평화 누리길 인제구간입니다.

[전창근/마을 주민 : "경치도 좋지만, 공기가 좋고요. 강이 옆에 있어서 강이 오염되지 않았잖아요. 진짜 좋아요."]

DMZ 평화 누리길은 인천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608.7km 길이로, 2010년부터 1,500억 원을 들여 조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안에 완성됩니다.

또, 내년 완성을 목표로 520km 길이의 'DMZ 평화의 길'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평화 누리길과 일부 구간이 겹치지만, 예약제로 운영되며 접경지의 역사적 장소를 해설을 들으며 걷는 특색이 큼니다.

[이명규/인제군 홍보 담당 : "완료가 되면 지역 소득하고 연계가 되고, 관광 자원하고 연계가 되도록 적극 알려 나가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인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를 잇는 3.6km 길이의 길도 200억 원을 들여 올해 10월 완성됩니다.

이처럼 접경지역의 DMZ 생태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길들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시설 밀집 지역이 있어, 이용객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어떻게 보장할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김왕규/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 "이용객 편의 도모와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GPS를 활용한 코스 안내 및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는 스탬프 투어 앱을 도입하여..."]

강원도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길을 접경지 주요 관광지와 연계해 실질적 경제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김영준 기자의 기사 모음

저작권©KBS뉴스(http://news.kb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